

numbers 제 36호



주요 내용

2020. 02.28

1.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대상 여론조사 결과
2. 넘버즈 칼럼
3. 코로나19 국내외 통계
4.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주요 교단 신학교 권고의 글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전국의 만 18 ~ 69세 성인 남녀 개신교인 중 현재 교회 출석자
- 표본 추출 방법 : 2015년 인구센서스 개신교 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 표본 크기 : 500명(유효 표본)
- 표본 오차 :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집 오차는 $\pm 4.4\%p$
- 조사 방법 : 온라인 조사(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조사 일자 : 2020년 2월 24일 ~ 2월 25일
- 조사 기관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국기독교언론포럼
(조사 수행 및 분석 : 목회데이터연구소, 진행 : 지앤컴리서치)

일러두기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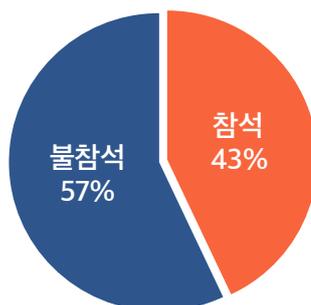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1

지난주 주일 예배(23일), 평소 교회 출석자 중 57%가 ‘교회 안 갔다!’

- 평소 교회 출석하는 개신교인 중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주 2월 23일(일요일)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지 확인한 결과, 교회에 ‘갔다’ 43%, ‘가지 않았다’ 57%로 교회 가지 않은 개신교인이 절반이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번에 신천지 집회와 청도 대남병원으로 인해 코로나19의 확산 지원지였던 대구/경북 지역의 교회 예배 참석률은 16%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그밖에 교회 봉사자보다는 비봉사자 층에서, 직분이 낮을수록, 교회 규모가 클수록 결석률이 높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그림] 지난 주 주일 예배 참석 여부 (%)



[표] 지난 주 주일 예배 참석 여부

지역		(%)			
	사례수	참석	결석	계	
서울	(124)	46	54	100	
인천/경기	(175)	42	58	100	
대전/충청	(49)	49	51	100	
대구/경북	(31)	16	84	100	
부산/울산/경남	(46)	26	74	100	
광주/전라	(59)	53	48	100	
강원/제주	(16)	63	38	100	

연령		(%)			
	사례수	참석	결석	계	
18~29세	(95)	45	55	100	
30~39세	(100)	29	71	100	
40~49세	(121)	42	58	100	
50~59세	(112)	47	53	100	
60~69세	(72)	51	49	100	

신앙 수준		(%)			
	사례수	참석	결석	계	
기독교 입문층	(106)	22	78	100	
그리스도 인지층	(137)	44	56	100	
그리스도 친밀층	(175)	47	53	100	
그리스도 중심층	(82)	59	42	100	

교회 봉사 여부		(%)			
	사례수	참석	결석	계	
한다	(268)	58	42	100	
안 한다	(232)	25	75	100	

교회 직분		(%)			
	사례수	참석	결석	계	
종직자	(67)	67	33	100	
서리집사	(189)	42	58	100	
일반성도	(244)	37	6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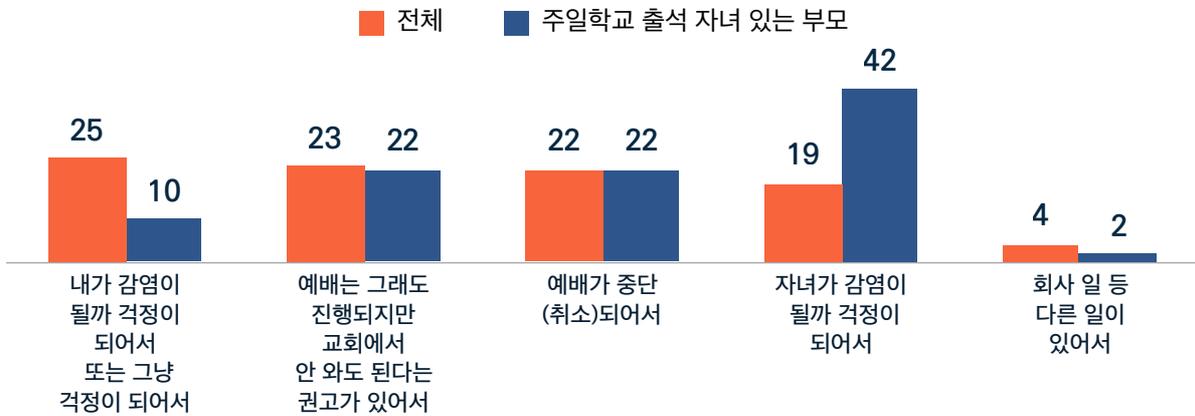
교회 규모		(%)			
	사례수	참석	결석	계	
100명 이하	(97)	64	36	100	
100~299명	(101)	42	58	100	
300~999명	(128)	42	58	100	
1,000명 이상	(174)	32	68	100	

2 교회 결석자 관련

● 교회 안 간 이유 : '본인 및 자녀 감염에 대한 우려', '교회에서 권고해서'

- 교회 안 간 이유에 대해 '본인 감염 우려'(25%), '교회에서 안 와도 된다는 공지'(23%), '예배 중단'(22%) 등이 비슷하게 높았고, '자녀 감염 우려'는 19%로 나타남
- 주일학교 출석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감염 우려 요인이 42%로 매우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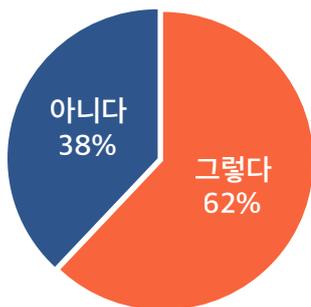
[그림] 지난주 교회 가지 않은 이유(주일 예배 불참자, 상위 5위) (%)



● 교회 안 간 교인, '집 또는 다른 곳에서 예배 드렸다' 62%

- 출석 교회 주일 예배를 결석한 교인에게 별도로 예배를 드렸는지 질문한 결과, 6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38%는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대구/경북 지역 교인들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대체 예배 비율을 보임

[그림] 출석 교회 이외에서 예배 여부 (코로나19요인으로 인한 출석 교회 예배 불참자) (%)



[표] 출석 교회 이외에서 예배 드린 비율(계층별) (%)

지역	예배 드렸다	교회 규모	예배 드렸다
서울	68	100명 이하	39
인천/경기	60	100-299명	56
대전/충청	63	300-999명	65
대구/경북	82	1,000명 이상	69
부산/울산/경남	48		
광주/전라	48		
강원/제주	75		

● 대체 예배 드린 방법 : '출석 교회의 온라인 동영상으로 예배 드렸다' 57%

- 대체 예배 시 '출석 교회의 온라인 동영상 예배'를 드린 경우가 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족끼리 별도의 가정 예배' 22%임
- 출석 교회 온라인 동영상 예배 층은 여성, 교회 규모가 1000명 이상인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많음

[그림] 지난주 교회 예배 방식(출석 교회 이외에서 예배자) (%)



[표] 출석 교회 온라인 동영상 예배 드린 비율(계층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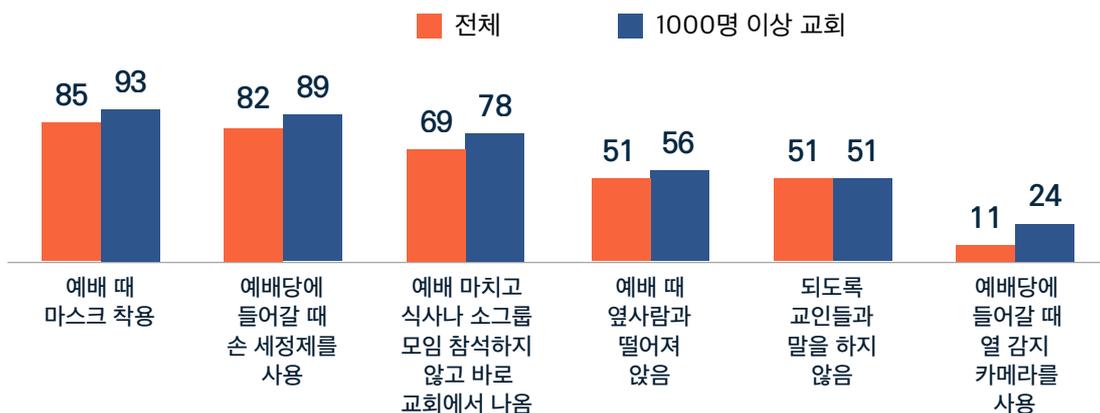
성별	예배 드렸다	교회 규모	예배 드렸다
남성	47	100명 이하	40
여성	66	100-299명	30
		300-999명	57
		1,000명 이상	71

3 교회 출석자 관련

● 교회 출석자 대부분이 마스크 착용과 입장 시 손 세정제 사용

- 교회 출석한 경우, 마스크 착용 85%, 입장 시 손 세정제 사용 82%, 예배 후 바로 나눔 69%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2명 중 1명 정도는 서로 떨어져 앉고, 말도 서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대체적으로 교회규모가 클수록 제시된 행동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예배 참석 시 행동(교회 출석자, 중복 응답) (%)



4

출석 교회의 코로나19 대응 조치 현황(24일 월요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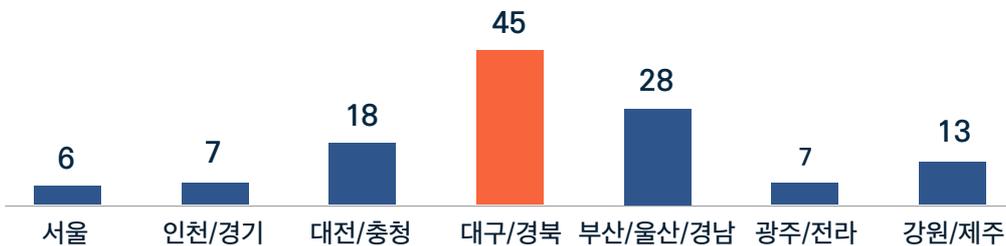
● 교회 전체 예배/모임 중단 12%, 교회 식당 운영/모임 중단 80% 이상

- 교회 전체 예배 및 모임을 중단한 비율은 12%로 나타남
- 그밖에 식당 운영 중단, 예배 이외 교회 모임 중단이 80% 이상 높게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주일 오후 예배 중단 72%, 금요 기도회 중단 70%, 수요 예배 중단 69%, 새벽 기도 중단 69% 등의 순으로 전체적으로 70% 안팎의 높은 중단율을 보임
- 대구/경북 지역의 교회 전체 폐쇄율이 4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음

[그림] 출석 교회 현재 상황 (%)



[그림] 교회 전체 예배/모임 중단율(지역별) (%)



5 돌아오는 일요일, 주일 예배 참석 의향

●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난주 참석자 중 돌아오는 주일 예배 참석 의향 : 79%

-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난주 참석자 중 예배 참석 의향율은 79%로 나타났는데, 나머지 22%는 ‘안 가겠다’는 의견과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태도가 함께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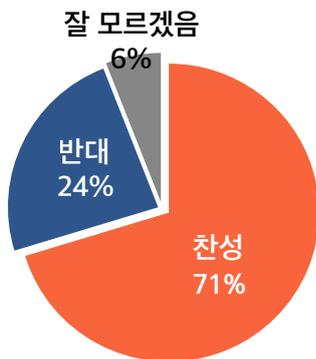
[그림] 현 상황 지속 시 돌아오는 주일 예배 참석 의향(교회 전체 예배/모임 중단자 제외)
(%)



6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일 대예배 중단 ‘찬성’ 71%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일 대예배를 아예 중단하자는 의견에 대해 ‘찬성’ 71%, ‘반대’ 24로 찬성 의견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신앙 수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신앙이 깊을수록 반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깊은 그리스도 중심층의 경우에도 찬성이 반대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일 대예배 중단 의견 (%)



[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일 대예배 중단 의견(신앙 수준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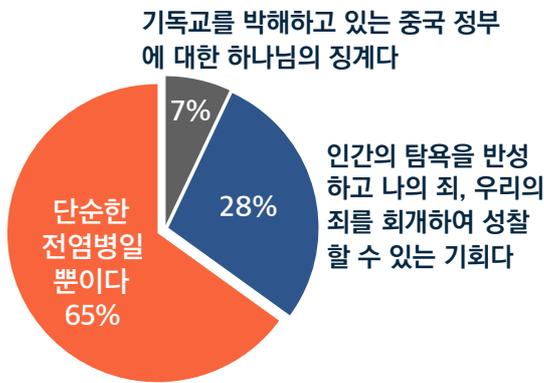
신앙 수준별	찬성 (%)	반대 (%)
기독교입문층	88	7
그리스도 인지층	74	20
그리스도 친밀층	64	29
그리스도 중심층	57	39

7 코로나19에 대한 인식

● 코로나19 사태, ‘단순한 전염병일 뿐이다’ 65%

-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개신교인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중국 정부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다’ 7%,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 성찰할 수 있는 기회이다’ 28%, ‘단순한 전염병이다’ 65%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단순한 전염병이란 인식이 압도적으로 높음
- 그러나 이를 신앙 수준으로 보면, 신앙이 깊은 층은 ‘죄의 회개/성찰 기회’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코로나19에 대한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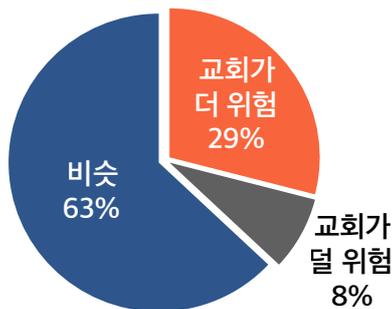
[표]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신앙 수준별) (%)

신앙 수준별	하나님의 징계이다	죄를 회개/성찰 기회	단순 전염병
기독교입문층	5	9	87
그리스도 인지층	2	18	80
그리스도 친밀층	10	42	49
그리스도 중심층	13	42	45

● 교회,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 더 위험하다는 인식 존재

- 다른 다중이용시설 대비 교회 위험도가 어떤지 질문하였는데, ‘더 위험하다’ 29%, ‘덜 위험하다’ 8%, ‘비슷하다’ 63%로 대체로 비슷한 인식이 높는데, 10명 중 3명 정도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다중이용시설과 교회 위험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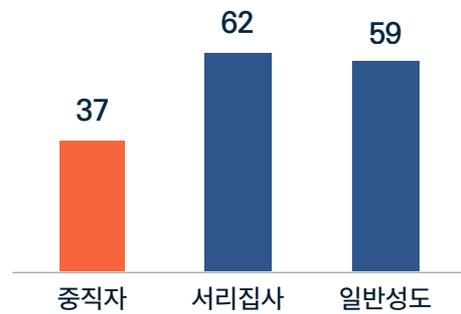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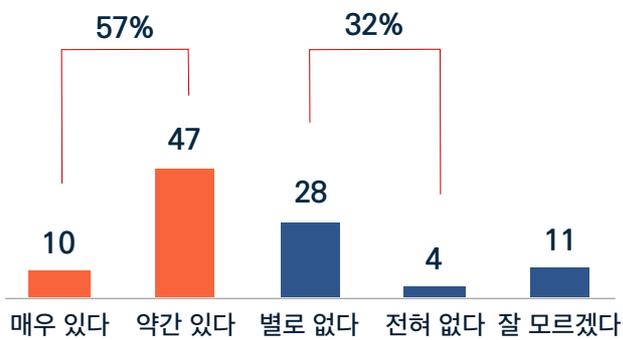


● 본인 또는 출석 교회 교인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57%로 비교적 높게 인식

- 코로나19에 대한 우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본인 또는 출석 교회 교인의 코로나19 감염성을 질문한 결과, 57%가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전체 응답자 10명 중 1명 정도는 '매우 있다'고 응답해 강한 우려감을 표현함
- 감염 가능성은 교회 직분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중직자가 37%인데 반해, 서리집사 또는 일반 성도는 60% 안팎의 높은 응답률을 보임

[그림] 출석 교회에서 본인/교인 감염 가능성 (%)

[그림] 출석 교회에서 본인/교인 감염 가능성(직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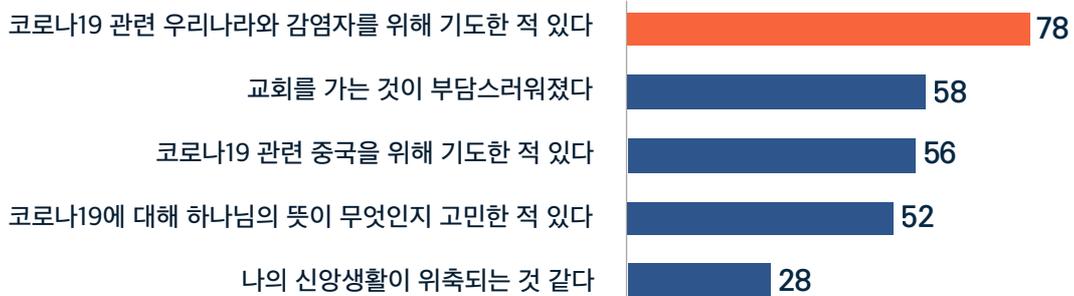
8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 대부분, 우리나라 감염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신교인들은 코로나19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52%), 중국을 위해 기도(56%)하고, 우리나라 감염자들을 위해 기도(78%)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코로나19로 '신앙이 위축되었다'는 응답은 28%에 지나지 않음
- 그러나 아직까지 교회에 가는 것은 58%가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음

[그림] 코로나19가 신앙에 미치는 영향('그렇다' 비율)

(%)



9 코로나19가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 외부 모임 빈도 줄고 가족과 식사 등 함께 지내는 시간 많아짐

-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신교인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각 항목별로 알아본 결과, 사람들과 회식을 피하고(77%), 외식하지 않고 집에서 식사하고(87%), 친구/동료/교회 모임이 줄어들면서(89%)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는(77%) 변화가 나타남
- 반면, 중국인/중국 교포에 대한 거부감이 늘고(76%), 코로나19 관련 혐오 표현을 접하는(79%) 등의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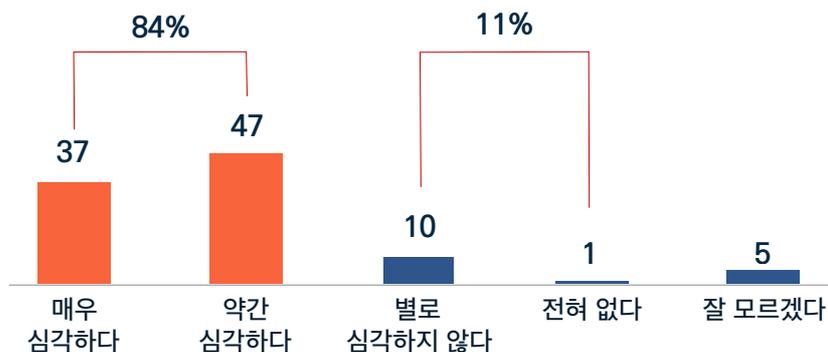
[그림] 코로나19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그렇다' 비율) (%)



●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개신교인 대부분이 심각하다고 느껴

- 코로나19와 관련 가짜뉴스가 얼마나 심각한지 질문한 결과, '심각하다'(매우+약간) 84%, '심각하지 않다'(전혀+별로) 11%로 대부분의 개신교인이 심각하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심각도 (%)



넘버즈 칼럼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조성돈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자문위원

코로나19의 영향은 크다. 우리생활 전반이 뒤바뀔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후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사 결과는 이후를 가늠해보고 대책을 세우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다.

1. 사회에서 공동체 의식이 요구될 것이다

전에 일본에 NGO들을 탐방할 일이 있었다. 특히 NGO가 활발한 고베 지역을 둘러보았는데 거기서 한 활동가를 만났다. 그는 고베 지역이 이렇게 활발하게 된 것에 대해 1995년에 있었던 고베 대지진을 그 배경으로 설명했다. 큰 재난을 겪고 나니 공동체 의식이 높아졌고, 그 여파가 시민운동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했다. 우리나라도 세월호의 영향이 컸다. 사람들은 안전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품게 되었고, 공동체가 붕괴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깨달았다. 이후에도 사고와 사건이 이어졌는데 그럴 때 마다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고 서로를 도와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번 코로나19의 사태에서 사람들의 경각심과 함께 공동체 의식을 보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그런 경향이 보인다. 지난 2월 23일 주일은 전염병에 대한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고 맞는 첫 주일이었다. 그런데 교인의 57%가 교회에서 주일예배를 안 드렸다고 대답을 했다.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예배에 대한 의식을 생각해 보면 아주 높은 수치이다. 그동안의 신앙고백을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의식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한 의식, 그리고 공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는 공동체의식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를 위해 기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것에서도 볼 수 있다. 앞으로 더욱 안전에 대한 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더 강조될 것이다. 또 실제적으로 이러한 활동들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2. 주일성수의 개념이 바뀔 것이다

한국 교회는 그 동안 주일성수는 순교의 각오로 지켜왔다. 최근에도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보여준 스토리처럼 주일성수는 어떠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 할 신앙적 원칙이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어려서 부터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교육을 받아온 바이다. 그런데 절반 이상이 주일에 교회를 안 갔다. 특히 주일성수에 있어서 철저한 원칙을 고수해 왔던 고신교단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경상도 지역에서 이번 전염병이 돌면서 이곳들은 교회 안 간 비율이 훨씬 높았다. 이제 돌아오는 주에는 더욱 그 비율이 높아갈 것이다. 아직 분위기를 보고 있었던 교회들이 예배를 중단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교인들의 마음에도 전염병의 여파로 교회를 안 가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많이 바뀔 것 같다. 특히 주일예배 불출석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의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 같다. 안 그래도 불출석교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주예배가 아닌 비정규예배로 대체하는 인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일은 이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해 줄 것 같다. 안전과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중단되어도 너무 신학적인 과잉반응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정말 이 일이 불가피한 일이라는 아픈 마음이 표현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 각성은 오히려 더욱 필요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해석이 여지가 있는 부분은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사람들 중 대체 예배를 드렸다는 인원이 62%인 것이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38%는 교회를 안 가거나, 못 가게 되었으니 주일에 드리는 예배도 쉬었다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다. 62%나 되는 사람들이 그래도 예배당을 떠나도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해야 할 것인지, 38%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 예배에 빠지면서 곧바로 예배를 포기했다고 해야 할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상식으로 40% 가까운 사람들은 교회가 주도하는 예배가 아니면 예배를 이어갈 수 없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들에게 예배를 이어갈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고 실제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공동의 기도문이나 예배문을 마련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자가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도문이나 예배문을 빨리 배포할 수 있기를 바란다.

3.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드러났다

우리 교인들은 대체 예배에서도 교회중심으로 움직였다. 특히 출석하는 교회의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서 대체 예배를 드렸다는 사람이 절반을 넘는 57%에 이른다.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작은 교회들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 교회 규모가 작은 교회의 교인들은 그 비율이 현저히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게 나온 것을 보면 확실히 한국 교회의 교인들은 개 교회에 소속감이 현저히 높다. 외국의 한 종교학자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개인이 기도하는 것을 새벽기도로 모이는 것이 신기하다고 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이와 같이 한국 교회는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출석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향이 이번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결코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현실이 이러하다는 것이다. 이에 각 교회들이 중심을 잡고 이번 사태에 잘 대응해 나갔으면 한다. 살펴볼 부분은 그래도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린 이들이 12%와 22%이다. 이를 합치면 34%에 이르는 사람들이 외부의 도움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명절에 예배예식서를 나누어주는 것처럼 각 교회들이나 기관이 배려해 주면 좋겠다.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모두 큰 고난을 직면하고 있고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사회나 교회 역시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한 것은 공동체 의식이 살아나면서 서로 돕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공동체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므로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동안 한국 교회가 절대적으로 생각해 왔던 주일성수의 금칙이 무너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고, 이후를 생각해서 너무 과도한 신학적 해석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이번에도 확인되었다. 앞으로도 개 교회의 역할이 기대되고 필요하다.

당부하고 싶은 것은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배려하여 온라인뿐만 아니라 공동의 기도문이나 예배문도 마련해 개별적 예배와 신앙생활이 가능하도록 배려해 주었으면 한다.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와 공동체 의식을 통해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1. 코로나19 관련 국내 및 세계 통계

2. 주요 교단 신학교 권고의 글

- 1) 장로회신학대학교
- 2)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 3)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

● 코로나19 관련 국내 및 세계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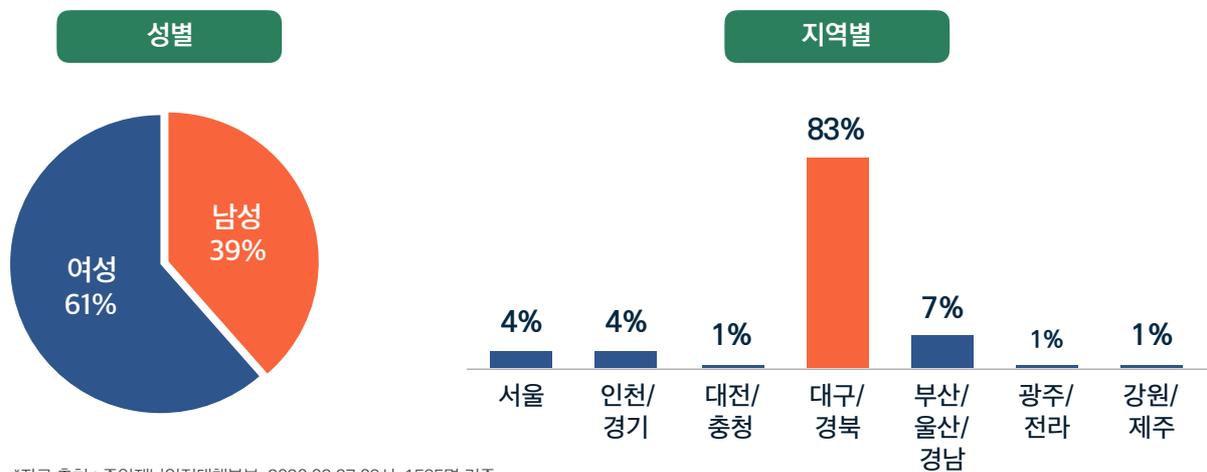
1 한국 통계

● 전체 추이(2/28일 오전 9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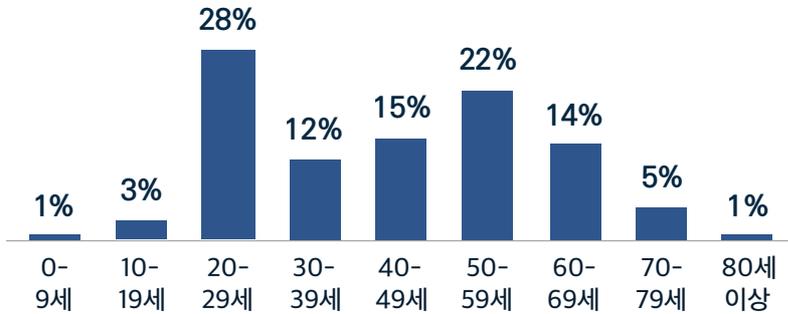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월 16~2월 28일까지 매일 오전 9시 확진자 기준

● 확진자 특성(2/27 오전 9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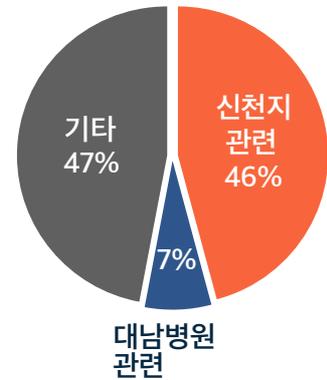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02.27.09시, 1595명 기준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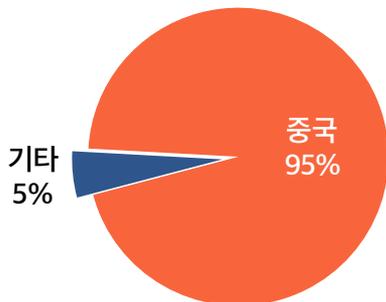


신천지 비율



*자료출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02.27.09시, 1595명 기준

2 세계 통계 (2/28 오전 9시 기준)



*자료출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02.28.09시, 기준

대륙별

대륙	확진자 수	%
아시아(15개국)	82,079	99%
유럽(19개국)	733	1%
중동(11개국)	248	0.3%
아메리카(3개국)	72	0.1%
오세아니아(1개국)	23	0.03%
아프리카(1개국)	1	0.001%
전체(50개국)	83,156	100%

*자료출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02.28.09시 기준

국가별 (상위 10위)

순위	국가	확진자 수	%
1위	중국	78,824	95%
2위	대한민국	2022	2%
3위	일본 크루즈	705	0.9%
4위	이태리	650	0.4%
5위	일본	210	0.2%
6위	이란	141	0.1%
7위	싱가포르	96	0.1%
8위	홍콩	93	0.07%
9위	미국	59	0.07%
10위	쿠웨이트	43	0.05%

*자료출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02.28.09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고통을 겪는 교회를 향한 위로와 권면의 서신

본 글은 장로회신학대학교의 허락을 얻어
학교 홈페이지 공지한 내용의 전문을 실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증 사태가 우리를 위협하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빌4:7).

코로나19 감염질환 사태가 2020년 2월 26일 오후 4시 기준, 국내 확진환자 1,261명, 사망자 12명, 전 세계 확진환자 79,807명, 사망자 2,746명에 달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감염질환 전문가들은 대유행의 조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창조세계 안에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기심, 부족함과 죄악이 만든 수많은 폐해를 참회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자연과 환경을 보존하고 건강하게 계승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12:15)”고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인간의 연약한 한계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이에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합니다. 인간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기독교인들이 공동체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생존을 위한 생활의 토대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이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절망과 실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빌4:1).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대적 약자들과 질병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기도하고 돌보는 일에 용기를 내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이를 돌보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도와 감염증 퇴치와 예방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것은 예배의 정신과 가치를 확장시키는 것이며, 복음을 구현하는 일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다중밀집 공간에서 짧은 시간 급속히 확산되는 특성 때문에 많은 교회가 각종 모임을 비롯하여 주일예배까지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되, 한 장소에 모이지 못할지라도 각자 처한 형편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요4:24)”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으셨습니다(마12:9; 막1:21; 3:1; 6:2; 눅4:16; 6:6; 13:10 등). 하나님과 늘 함께하셨던 임마누엘 예수님이셨지만(마1:23), 임의로 예배하지 않으셨고 회당을 찾아 함께 예배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장소에 지나치게 방점을 두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장소가 아닌(요4:20-21)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요4:23-24). 그러므로 예배의 본질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며, 구별된 장소와 신앙 공동체를 찾는 것은 주님을 본받는 거룩한 행위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2세기 이후 교회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전통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는 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감염질환 사태라는 현(現) 시국의 엄중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이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위한 예배의 자세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셨습니다(막3:4; 눅6:9). 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행위는 안식일의 거룩성(聖守)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마12:10). 그래서 예수님처럼 주일에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주일성수입니다. 문자적이고 형식적인 규정에 치우쳐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이는 바리새인의 자세와 다를 바 없습니다(마12:14).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은 결코 용납될 수 없지만(히10:25),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기 위해 교회와 성도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국가적, 사회적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주일예배의 방식과 형태를 각 시대의 교회 문화와 통념에 맞게 임시적으로 취해왔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뱅은 교회가 비록 지역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흩어져 존재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오늘의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에 비춰볼 때 시사점이 크다 하겠습니다. 각자 흩어져 드리는 예배가 비록 물리적으로는 한 몸을 이루지 못하나, 신앙고백과 참회, 성경읽기와 해석, 감사와 찬양, 봉헌과 결단, 파송의 내용을 동일하게 실행할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묶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난 상황하에 있는 교회는 공동모임에서 교회의 의미와 예배의 권위를 찾을 것이 아니라, 흩어진 예배자들을 묶으시고 세우시는 말씀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권위와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다짐을 담아 코로나19 감염질환 확산방지를 위한 주일예배 지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것이 이례적이며 임시적인 대응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 기존 교회예배

- 1) 교회는 각기 처한 상황에 맞게 예배를 조정 합니다.
어떤 예배를 어떻게 유지, 중단, 간소화할지 자체 기준을 마련합니다.
주일예배 : 주중모임들과 차등을 두어 고려합니다.
주중모임 : 예배모임 -> 교육 -> 친교모임 순으로 차등화합니다.
동원되는 목회 인력을 최소화 (장례를 비롯한 특수한 경우 예외)합니다.
- 2) 예배 : 참여자 상호 간의 위생유지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정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2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비치, 실내공기 환기 등
- 3) 예배를 간소화할 경우
유지할 순서 정하기 : 개회선언, 기도, 찬양, 설교, 봉헌, 축도, 폐회기도 등
생략할 순서 정하기 : 악수례, 세례-성찬, 통성기도, 안수기도 등

4) 설교

설교자의 비말을 통한 감염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시간을 줄입니다.

설교자와 성도 간의 거리가 가까울 경우, 설교자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5) 봉헌 : 교회의 금융계좌로 송금하는 방식도 좋으나, 예배의 정신을 살리고 올바른 참여를 위해 예배공간에 봉헌봉투와 작은 접시(바구니)를 준비하여 봉헌시간에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6)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나. 예배문을 통한 디아스포라(재택) 주일예배

미디어 중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이 시행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교회가 제작하여 제공한 예배문에 따른 디아스포라(재택) 주일예배를 뜻합니다.

1) 교회

- 통일된 예배문을 제작하여 인쇄물이나 혹은 SNS를 통해 가정별로 제공합니다.

- 예배인도를 위한 수칙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 예배는 간소화한 형식으로 30분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 찬양 : 반주 없이 쉽게 인도하고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으로 합니다.

- 예배문은 인도자용과 예배자용 두 종류로 작성합니다.

인도자용 : 예배 부름, 기원 기도, 죄의 고백, 설교문, 봉헌기도, 교제와 소식, 폐회 기도과 파송 등 진행 문구를 포함한 예배문

예배자용 : 인도자의 내용을 뺀, 예배의 내용이 담긴 예배문

2) 가정

- 가정별로 예배인도자 한 사람을 정합니다.

- 예배 시작 5분 전에 기도로 마음을 모으도록 합니다.

- 말씀 : 인도자는 교회가 제공한 목회자의 설교문을 대독하거나, 설교자의 설교영상이나 음성파일을 다운 받아 청취합니다.

- 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사랑과 배려의 정신에 따라 기존 교회예배, 디아스포라(재택)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감동과 의미를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via Dolorosa)을 묵상하며 부활 신앙을 다짐하는 사순절(四旬節), 모든 교회가 주님 안에서 평강 누리시기를 다시 한 번 기도합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위원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의 주일예배 형식에 대한 제언

본 글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허락을 얻어
공지한 내용을 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 심각하게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 상황과 관련하여 주일예배를 가정에서 혹은 영상송출을 통하여 드리는 것이 가능한 지에 관하여 논의와 문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의 주일예배 형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에 관점에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신학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개혁교회는 성경에서 가르친 것만을 예배의 원리(규정적 원리)로 삼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구약의 안식일 제도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공예배를 임의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히 10:25;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6). 즉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지켜야 할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예배에 관해 성경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는 것들은 성경 말씀의 일반법칙에 근거하여 본래의 이성과 기독교적인 분별력으로 처리해야 할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안에 따라 당회가 일정한 결정을 내려 다른 형태의 예배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을 따르는 교단 헌법 제 6조). 물론 다양한 형태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예배모범을 따라서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기도, 찬양, 말씀, 성례(정기적), 헌금; 예배모범 18장)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예배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때, 장소, 형태에 대해서는 지혜와 분별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은 초대교회의 예배장소이기도 했기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성경적인 근거에 기초한 가장 본래적인 예배 형태입니다(행 2:46; 5:42; 12:12; 롬 16:15; 몬 1:2).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참된 신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마 18:20). 또한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의 상황에 처했다거나, 해외 선교지에서 핍박을 피하여 은신처에 숨게 되었다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에 거하게 된 경우라면, 예배당에 모여 드리지 않는 예배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27년 비텐베르크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 마르틴 루터는 떠나지 않고 남아서 환자를 돌보고 강의를 진행했으나, 남은 자들을 돌볼 수 있는 목사의 숫자가 충분할 때 그는 더 많은 목사들이 감염될 필요는 없으니 굳이 올 필요는 없다면서 “이러한 행동 [감염에 노출하지 않는 것]을 죄로 간주하지 않는다. 왜냐면 영적 예배들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요 필요하면 얼마든지 머물고자 했기 때문이다”(Luther's Works, vol. 43:121)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전염병의 창궐이라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재난입니다. 또한 이단 신천지의 추수꾼들이 예배에 침투하여 바이러스를 고의로 전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급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재난에 대한 긴급한 대응으로서의 조치를 고려하여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실천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공예배의 실천을 강조하는 개혁교회의 예배 정신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

계와 성도 간의 수평적 관계를 모두 포함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과 더불어 언약공동체로서 연합, 교육, 건덕 역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을 통해 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공동체적 모임을 당회의 결정과 감독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예배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면,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발생한 위기 상황 가운데 교회는 개인의 신앙도 존중해야 하지만, 국민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를 안정되게 하기 위한 실천에도 앞장서야 함이 마땅합니다. 온 피조세계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나가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힘써 기도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재정 후원이나 자원 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나라를 섬겨야 합니다. 또한, 대중적 집회를 통한 감염확산을 방지하고 신천지 이단 집단의 바이러스 전파 시도를 미연에 차단하여, 교회 내의 성도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코로나 19 감염이 지역사회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로서 지역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기도와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고려에 근거하여 교회는 재난에 대한 임시조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중 모임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선제적인 대응으로써 예배장소를 변경하여 가정에서 혹은 영상송출을 통해 주일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임시적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배회피나 말씀에 대한 불복종은 아닐 것입니다. 비상적인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보호하며 지역사회의 보존을 위해 협력하는 신앙 실천의 한 형태일 것입니다. 만약 신앙에 대한 배도, 예배 회피로의 유혹을 마주한 경우라면, 생명을 걸고서라도 예배당에 모여 주일예배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는 재난의 상황에 처한 성도들을 돌보고 지역사회를 지켜내야 하는 특수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지역마다 상황이 다를 것이므로, 어떤 방식의 대응이 적절할 지는 각 교회가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때 네 가지를 유념하면 유익할 것입니다. 첫째, 각 교회는 당회의 논의 혹은 그에 준하는 총회가 정한 방식을 통해 공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는 정부의 권고나 여론의 동향에 기초한 결정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과 교단헌법의 원칙에 기초한 신학적, 목회적 결정이어야 합니다. 둘째,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힘든 경우라면, 가정예배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예배모범 15장). 가정예배는 공예배의 확장이자 구체적 실천 장소입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라는 예배신학적 측면에서 임시적이며 보충적 조치입니다. 셋째, 가정에서 혹은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이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목양적 인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코로나19 확산의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예배당에서 드리는 공중예배로 즉시 복귀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이번 사태를 마주하며 우리는 그동안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었음에 대해 깊이 감사하며, 이 상황을 바른 예배의 정신과 실천을 향한 예배 갱신의 기회로 삼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에서의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단의 횡방을 물리치고, 지역사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적 비상 상황과 공예배에 대한 신학적·목회적 성찰

본 글은 고려신학대학원의 허락을 얻어
학교 홈페이지 공지한 내용의 전문을 실었습니다.

1.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로 인해 한국 사회 전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성도들 가운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이 생겨나면서, 급기야 주일예배를 취소하고 온라인 예배 등과 같은 대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16일 주일부터 일부 교회들이 이미 인터넷을 통한 예배를 시행하면서 한편으로 이 현상이 주일 성수와 공예배의 중요성을 약화시키게 된다는 우려도 생기고 있다.

2.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구체적인 한 장소에 모여서 유일하시고 참되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이다(신 4:10).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 18:20), 즉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시행되는 곳에 교회가 있다. 따라서 성도는 모이기를 폐하지 않고 힘써 모여야 한다(히 10:25). 우리 신앙고백서도 신자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지만, 공적 집회에서 더 엄숙하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집회를 임의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친다(웨스트민스터 신 앙고백서 21:6). 성도는 질병 혹은 감염의 이유로 발생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으로는 모여 예배하는 것을 더욱 사모해야 하며 혹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안타깝게 생각해야 한다.

3. 공예배가 지극히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고백서가 가르치고 있듯이 공예배를 절대화시키는 위험에 빠져서도 안 된다. 무지와 미신에 빠져있었던 중세 시대의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예배당으로 몰려들기도 하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염병을 더욱 확산시켰던 역사적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종교개혁가들도 주일 성수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였다. 하지만, 전염병이 돌았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한 피신을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비록 칼빈이나 루터와 같은 위대한 목회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남아있는 환자들을 돌보기도 하였지만 성도들이 예배당을 떠나 피신하는 것까지 금하지는 않았다.

4. 교회가 추가 감염을 예방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성도들을 일정기간 격리시키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레위기 11-15장의 정결법은 부정하게 된 사람이 성막과 공동체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진영 밖으로 격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히 브리서 10:19-22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믿음과 회개를 통해 성도들이 제의적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한 몸과 마음을 얻게 됨으로 근본적으로 성취 되었다. 하지만 레위기 15:31, 민수기 5:2-3, 19:20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공동체를 전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정결법 제정의 목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 교회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에 걸렸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성도들의 예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위의 말씀들을 적절하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성경은 신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평안을 도모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고 가르친다. 하나님께 서는 심지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읍(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 하셨다(렘 29:7). 세상 통치자들을 위한 기도는 나라를 위한 성도의 의무이다(딤후 2:1-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4). 세상의 평안을 위해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고 또 시민으로서 협력해야 한다. 이런 과정 속에서 교회는 평안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다 할 기회를 얻고(렘 29:7, 딤후 2:2),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서 복음 전도가 더욱 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6.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주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공예배 외에 다른 형태의 예배를 시행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예배들이 공예배의 중요성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점에서 당회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정치 121조 2항은 교회의 제반 예배를 주관하는 것을 당회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예배 외의 특별한 형태의 예배 들은 편의적이거나 자의적으로 시행되어서는 안 되며, 당회의 결정과 감독에 따라 질서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성도들은 당회의 결정이 미흡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순종해야 한다.

7. 이와 같은 전염병들은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코로 나 발생을 어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또한 전염의 위험 때문에 예배 처소에 모이지 않은 성도를 성급하게 불신앙으로 정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본 질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마 4:6). 역병의 유행은 종말의 징조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한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교회는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아야 하고 이웃들에게 필요한 예방 물품들을 공급하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바울 사도 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 리라”(갈 6:9)

성경은 곳곳에서 신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한다.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신자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신자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거나 걸리더라도 낫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신자 들은 오직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 하심을 확신해야 한다. 우리 개혁신앙의 선배들은 극한 환란과 고난 속에서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 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이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였다. 이 신앙이야말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개혁신앙의 힘이요 유산이다.

삼위 하나님의 평강이 고신 총회 산하 모든 교회에 있기를 소망한다. 아멘!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크리스천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 휴직
-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크리스천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년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크리스천의 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 · 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교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크리스천,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살림살이 전망,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 35호 |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후원

후원 교회 |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노량진교회 백주년기념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오륜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주안장로교회
진주삼일교회 창동염광교회 한소망교회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광주지식포럼 (사)사단법인아시아미션 (사)새길과새일
알파코리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한목회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빛누리 (재)CBS CCC 사역연구소

후원 기업 | 동광에스아이 (주)마프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인 (주)참든건강과학 (주)트로인 (주)하츠
한국피스메이커

후원 개인 | 김성렬 김성은 김재욱 남성태 류지성 박우빈 반기민 배수정 안태근 이인성
이춘봉 조창오 최은아(가나다순)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후원 교회, 기관, 개인은 홈페이지에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 02-322-0726,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링크 → [클릭 하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